

불교의 참회수행

- 초기경전인 한역 『아함경』을 중심으로 -

도업스님(강기선)*

I. 서론
II. 참회의 기원과 정의
1. 참회의 기원
2. 참회와 참괴의 정의
III. 아함경에 실해진 참회수행 일화
1. 장아함경의 사례
2. 중아함경의 사례
3. 잡아함경의 사례
4. 증일아함경의 사례
IV. 결론

■ 한글요약

본 논문은 초기 경전인 한역 『아함경』을 중심으로 불교의 참회 수행에 대해 고찰해본 글이다. 우리 인간은 하루하루 몸과 말과 생각으로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을 지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존재이다. 불교의 참회는 이러한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다. 한역 『아함경』을 바탕으로 불교의 참회 수행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첫째, 참회의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그 잘못을 드러내는 행위인 참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참회수행은 석존 당시부터 중생교화의 방법으로써 매우 중요시 되었던 윤리 덕목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참회수행은 계율과 연결되어 교단의 사부대중과 더불어 외도바라문들까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 윤리 덕목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한역 4종류의 『아함경』 일화에는 참회의 3요소 즉, 참회하는 사람과 참회의 대상, 그리고 참회하는 행위가 갖추어져 설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회의 3가지 요건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진 것이 초기불교 교단의 행사인 ‘포살(布薩)’과 ‘자자(自恣)’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포살과 자자는 오늘날 한국불교에서도 여전히 전승되는 참회수행이다. 넷째, 본 연구의 『장아함경』·『중아함경』·『잡아함경』·『증일아함경』의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참회에 대한 부처님의 핵심교설은 연기법과 사성제로 한결같이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불교의 참회수행의 가장 큰 특징은 외도바라문로부터 범지·국왕·죄인·우바새·우바이·출가수행자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부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들의 참회를 받아 어리석음을 없애주고, 그들을 대기설법(對機說法)의 비유로써 교화하고, 악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을 제시함과 더불어 안온한 해탈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불교, 참회와 참괴, 수행, 아함경, 사성제.

I. 서론

우리 인간은 하루하루 몸과 말과 생각으로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을 지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존재이다. 몸으로는 불살생(不殺生)과 살생(殺生), 불투도(不偷盜)와 투도(偷盜), 불사음(不邪淫)과 사음(邪淫)이라는 3가지 업을 짓고, 말(口)로는 불악구(不惡口)와 악구(惡口), 불양설(不兩舌)과 양설(兩舌), 불기어(不綺語)와 기어(綺語), 불망어(不妄語)와 망어(妄語)라는 4가지 업을, 그리고 생각(意)으로는 불탐욕(不貪欲)과 탐욕(貪欲), 불진에(不嗔恚)와 성냄(嗔恚), 불치(不癡)와 어리석음(癡)이라는 3가지 업을 짓는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십선업(+善業)과 십악업(+惡業)이라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참회수행을 크게 2가지 측면에 입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참회의 기원과 정의를 참회와 참괴로 구분하여 분석해보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Ⅲ장에서는 4종류의 『아함경』에 설해진 참회수행의 일화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것을 통해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전언을 도출해보도록 하겠다.

Ⅱ. 참회의 기원과 정의

이 장에서는 참회의 기원과 참회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참회와 참괴는 거의 동일한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참회를 세부적으로 참회와 참괴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참회의 기원

참회의 기원을 살펴보면, 참회는 인도의 우파니샤드 철학시대에도 이미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불교에서 참회가 하나의 의식작법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원초적인 형태는 초기불교 교단의 행사인 ‘포살(布薩)’과 ‘자자(自恣)’에서 찾아볼 수 있다.¹⁾ 이 자자와 포살의 기원은 인도의 6월에 발생하는 우기(雨期)에 유행생활의 불편을 피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정진수행에 힘쓰기 위한 안거제도(安居制度)에서 시작하게 되었다²⁾고 한다.

포살은 오늘날 한국의 대표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하안거와 동안거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초기불교전통은 월2회에 동일 지역 내의 비구들이 함께 모여서 계율의 조문을 읽고, 죄를 범한 것을 참회하는 형식의 수행법이다. 포살은 원래 힌두교의 정진 결제일 이었다고 하며, 불교도 초기불교에서 일찍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한다. 비구의 포살은 매월2회 초하루와 보름에 승가의 비구 전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리며, 여기서는 비구가 지켜야 할 계율의 조목인 바라제목차(波羅提木次)³⁾를 읽고, 이를 위반한 비구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참회하게 된다.

자자(自恣) 역시 불교에서 안거(安居)가 끝난 출가자들이 모여 안거기간 동안의 허물을 지적받는 의식이다. 자자(自恣)란 안거의 종료일에 3개월 동안을 함께 지낸 동료들끼리 율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것을 깨트린 일이 없었는가를 서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의식이다. 자자(自恣)는 자자(自恣)하는 날과 의식에 따라 『사분율』에서는 1일·14일·15일 등에 3가지를 설하고, 팔리어 율에서는 매월 14일과 15일에 자자(自恣)를 설하고 있다. 포살이 안거기간에 실시하는 것이라면 자자는 안거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는 것만 다르고, 죄에 대해 허물을 참회

1) 이광준(2006), 24.

2) 법경(2019), 69.

3) 이태원(2000), 79.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하겠다. 포살의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범행을 지키고 화합하며, 또한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율을 지키고 승단의 청정성을 지키며, 바라제목차를 경청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조절할 능력을 기르고, 자기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교단의 구성원들이 서로화합을 도모하게 함에 있다⁴⁾고 하겠다. 따라서 포살과 자자는 불교 교단의 구성원인 승가의 청정성과 성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 생활함에 항상 반성하고, 죄를 지었으면 참회하여 승단의 청정성을 유지하게 하고자 한, 승가내의 윤리규범이자 하나의 실천행이라고 할 수 있다.

2. 참회와 참괴의 정의

여기서는 참회와 참괴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참회의 원어에 대하여 언급해보면, 참회의 원어인 *deśanā*는 번역자에 따라 상이한 용어로 번역되었는데, 현장은 ‘발로회멸(發露悔滅)’⁵⁾이라고 풀이하였고, 담무참(曇無讖)은 참회(懺悔)⁶⁾라고 각각 번역하고 있다. 참(懺)의 원어는 참마(懺摩 *kṣāma*)의 발음을 줄인 것으로서 ‘용서를 빈다.’, ‘뉘우친다.’, ‘참는다.’라는 뜻이며, 회(悔)란 *kṣāma*의 뜻을 번역한 말이다. 즉, 참(懺)은 ‘죄를 용서하여 받아주시기를 다른 이에게 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悔)의 원어는 ‘아발저제사나아발저(阿鉢底提舍那阿鉢底)’⁷⁾이다. 참회는 추회(追悔) 또는 회과(悔過)의 의미로 쓰였다. 즉 과거의 죄를 뉘우쳐 불보살과 대중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사죄함으로써 멸죄(滅罪)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4) 이문복(2000), 22.

5) 『瑜伽師地論』(T30, 521a), 發露悔滅惡作罪法.”

6) 『菩薩地持經』(T30, 916c), “…懺悔法說…向一人懺悔…”

7)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T23, 706a), “阿鉢底提舍那阿鉢底.”

의정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제15권의 「오가학처(汚家學處)」에서 “참(懺)과 회(悔)의 의미가 다르다.”⁸⁾라고 밝히고 있는데, 참은 ‘용서를 빈다.’라는 것이고, 회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죄를 제거하는 설죄(說罪)’ 이므로 참(懺)보다는 무거운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참회는 어원과 의미로도 단순한 사죄(謝罪)의 의미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허물을 사죄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을 향해 죄를 개회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 중국 6조 혜능은 참회를 “참(懺)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토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요, 회(悔)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아는 것이다. 나쁜 죄업을 항상 마음에서 버리지 않으면 모든 부처님 앞에서 입으로 말하여도 이익이 없다.”⁹⁾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참회란, 결국 참회의 원어 ‘deśanā’ 본래의 의미처럼 ‘자신이 범한 죄를 다른 이에게 고백한다.’고 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광의적인 참회의 참(懺)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침이요, 회(悔)는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잘 하겠다¹⁰⁾는 맹세의 서원까지 함의되어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참회란 잘못의 뉘우침만이 아니라 다시는 잘못의 뉘우침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맹세로, 참회가 이루어지면 용서를 받을 수 있기¹¹⁾ 때문이다.

참괴(慚愧)의 원어에는 담긴 의미를 살펴보자면, 참(慚)은 hri의 역어로 여기 담긴 의미는 ‘여러 가지 공덕 혹은 덕 있는 자(有德者)를 숭배하는 마음’ 또는 ‘스스로를 돌이켜 보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괴(愧)는 apatrāpya의 역어로 ‘죄를 두려워하는 마

8)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T23, 706a), “懺是西音 悔是東語.”

9) 성철 역(1990), 153.

10) 김현준(2012), 18.

11) 목정배(2003), 169.

음’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자신이 지은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이다. 여기에 대한 경전의 근거는 『대반열반경』으로 『대반열반경』에는 참괴(慚愧)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교설하고 있다.

부처님 세존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선한 법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으니, 첫째는 참(慚)이요, 둘째는 괴(愧)이다. 참(慚)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괴(愧)는 다른 이를 시켜 죄를 짓지 않는다. 참(慚)은 마음 속으로 수치한 줄 알고, 괴(愧)는 남을 향하여 죄를 털어 놓는다. 참(慚)은 사람에게 부끄럽고, 괴(愧)는 하늘께 부끄러워하나니 이것을 참괴라 한다. 참괴가 없는 이는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짐승이라 이름하며, 참괴가 있으므로 부모와 스승과 윗사람을 공경하고, 참괴가 있으므로 부모 형제자매가 있다고 말한다.¹²⁾

위 경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참괴는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덕목이며, 자기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범행(梵行)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승계(大乘戒)정신이다. 왜냐하면 대승계(大乘戒)는 생각하는 것 자체로도 계를 범한다고 하는 마음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불본행경』 제7권의 「대멸품(大滅品)」에서도 참괴(慚愧)를 계송의 비유로써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참괴(慚愧)로 의복을 삼고/ 영락(瓔珞)은 코끼리의 코뚜레로 알라.
참괴를 놓아 버리는 사람은 / 온갖 덕의 착함을 버림이요.
참괴를 갖는 사람을 / 일러 사람이라 이름하고

12) 『大般涅槃經』(T12, 477b) ; 『大般涅槃經』(T12, 720b), “諸佛 世尊常說 是言 有二白法能救衆生 一慚, 二愧. 慚者, 自不作罪 愧者, 不教他作. 慚者, 內自羞恥; 愧者, 發露向人. 慚者, 羞人; 愧者, 羞天 是名慚愧 無慚愧者, 不名為人, 名為畜生 有慚愧故, 則能恭敬父母、師長; 有慚愧故, 說有父母、兄弟、姊妹.”

두꺼운 얼굴에 부끄러움을 모르면 / 이것을 일러 짐승이라 한다.¹³⁾

위 경문에서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떤 삶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여기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참괴로 의복을 삼고, 항상 참괴의 마음을 가지고 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지고 성찰의 마음으로 생활하는 삶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집착하는 물질적 영락은 한낱 코끼리의 코뚜레에 불과하기 때문에 탐착하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참괴를 놓아버리는 사람은 온갖 덕의 착함을 버리는 것이고, 두꺼운 얼굴에 부끄러움을 모르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하면서 간곡히 일러주고 있다. 그런 까닭에 『대보적경』의 「보살장회」에서는 참괴를 “안으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참괴(慚愧)로 장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보살마하살의 바른 법의 자량[正法資糧]에 상응하는 옳은 행동¹⁴⁾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III. 아함경에 설해진 참회수행 일화

불교경전인 『아함경』에는 참회사상이 포함된 일화가 경전 도처에 수록되어 있는데, 『아함경』에서는 참회(懺悔)·참사(懺謝)·회과(悔過)·수과(首過) 등의 개념들과 동일시되어 교설되고 있다. 여기서는 한역 『아함경』에 설해진 참회수행의 일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3) 『佛本行經』(T4,107c), “慚愧爲衣服 瓔珞象之鉤 放捨慚愧者 衆德善所棄 執持慚愧者 以故名爲人 強顏不知慚 是名爲畜獸.”

14) 『大寶積經』(T11, 306a), “名爲菩薩摩訶薩 正法資糧相應正行 內懷羞恥慚愧莊嚴.”

1. 장아함경의 사례

먼저 『장아함경』에 설해지고 있는 참회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를 죽인 아사세 왕이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회과(悔過)하는 장면을 들 수 있다. 아사세왕은 자신의 부친을 죽이고 하루도 마음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보름 날 밤에 많은 신하들과 수명동자에게 “오늘밤은 청명하여 낮과 다름이 없다. 마땅히 어떤 사문 바라문을 찾아가야 내 마음이 열릴까?”¹⁵⁾ 라고 묻게 된다. 그때 수명동자는 “불세존(佛世尊)이 계십니다. 그 분은 지금 저의 암바(菴婆)동산에 계십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왕께서 만나보시면 마음이 반드시 열리실 것입니다.”¹⁶⁾라고 위로하며 부처님을 친견할 것을 권한다. 이것을 계기로 아사세왕은 부처님을 친견하려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수명동자를 수없이 의심하지만, 수명동자의 간청에 따라 부처님을 친견하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여 부처님의 교화로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내용이다. 아사세 왕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참회’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아래의 경문은 말해주고 있다.

아사세왕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숙여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오직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의 뉘우침을 받아주소서. 저는 미치광이이고 어리석고 어둡고 무식합니다. 저의 아버지 병사왕은 법으로써 다스리고 교화하여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5욕에 미혹하여 사실은 부왕(父王)을 해쳤습니다. 오직 원

15) 『佛說長阿含經』(T1,107c), “王又命壽命童子而告之曰 今夜清明, 與晝無異, 當詣何等沙門、婆羅門所開悟我心.”

16) 『佛說長阿含經』(T1,107c), “壽命童子白言 有佛 世尊今在我菴婆園中 大王 宜往詣彼問訊, 王若見者, 心必開悟.”

큰대 세존이시여,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의 참회를 받아 주소서.”

부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리석고 어둡고 무식한 것을 했지만 이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대는 5욕에 미혹하여 끝내 부왕을 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성의 법 가운데서 능히 허물을 뉘우친다면 곧 스스로 이익 되고 편안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를 불쌍히 여겨 그대의 참회를 받아들일 것입니다.”¹⁷⁾

이 경문에서 부처님은 현성의 법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이익되고 편안해진다는 것을 아사세왕에게 설해주고 있다. 아사세왕은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당시 사회를 풍미(風靡)하던 육사의도를 찾아가 ‘현세에 얻는 과보’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불전(佛前)에서 토로하고 있다. 아사세왕은 육사의도에게 질문하였던 내용을 다시 부처님께 하였는데, 이때 부처님은 사문의 현세의 과보에 대해 여러 가지 방편으로써 알려주고 있다. 또 부처님은 현세에 복을 짓고, 현세에 과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법해주시며, 아사세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아사세왕은 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5욕에 미혹에서 부왕을 살해한 자신의 죄를 부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며 참회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5계를 지키는 신심 있는 우바새가 되겠다고 다음과 같이 서원하고 있다.

저는 이제 몇 번이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제가 정법 가운데서 우바새가 되는 것을 허락하여 주소서. 저는 지금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탕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¹⁸⁾

17) 『佛說長阿含經』(T1,109b), “爾時, 阿闍世王即從坐起, 頭面禮佛足, 白佛言 唯願世尊受我悔過, 我為狂愚癡冥無識, 我父摩竭瓶沙王以法治化, 無有偏枉, 而我迷惑五欲, 實害父王, 唯願世尊加哀慈愍, 受我悔過. 佛告王曰 汝愚冥無識, 但自悔過, 汝迷於五欲乃害父王, 今於賢聖法中能悔過者, 即自饒益. 吾愍汝故, 受汝悔過.”

위 「사문과경」의 일화내용과는 조금 상이하긴 하나, 거의 동일한 내용이 『적지과경(寂志果經)』과 『증일아함경』 제39권 『마혈천자품(馬血天子品)』 그리고 『잡아함경』 제7권에도 설해져 있다.

상술한 『장아함경』 「사문과경」에 교설된 참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참회는 자신의 죄의 허물(罪過)을 바로 알아 진심으로 드러내고, 그 참회를 부처님이 받아줌으로써 죄과(罪過)는 줄어들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회도 참회를 받아 줄 만한 현성의 법 가운데서 능히 허물을 뉘우쳐야 진정한 참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중아함경의 사례

『중아함경』 제4권의 「업상응품파나뇌경경(業相應品波羅牢經)」에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과보를 동반하는지를 알 수 있는 참회수행의 일화가 설해져 있어 주목된다.

<파라뢰가미니> 사문 구담은 환(幻)을 안다. 이것이 곧 환자(幻者)이다.¹⁹⁾

<세존> 네 자신이 잘못 알고서 나를 비방하지 말라. 만일 나를 비방하면 곧 스스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사문 구담은 환을 안다. 그러나 그는 곧 환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목숨이 끝나면 지옥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²⁰⁾

18) 『佛說長阿含經』(T1, 109c.), “我今再三歸依佛, 歸依法, 歸依僧, 唯願聽我於正法中為優婆塞, 自今已後, 盡形壽不殺、不盜、不姪、不欺、不飲酒.”

19) 『中阿含經』(T1, 445c), “沙門瞿曇知幻即是 幻者.”

20) 『中阿含經』(T1, 445b-c), “汝莫自誤, 謗毀於我, 若謗毀我者, 則便自損 若有作是說 沙門瞿曇知幻即是幻者, 彼未斷此語, 命終生地獄中.”

<과라뢰가미니> 잘못을 뉘우치겠습니다. 구답이시여,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선서시여, 저는 바보 같고 미치광이 같으며,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며 나쁜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망령되게 사문 구답이 곧 환자(幻者)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구답이시여, 제가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알아 드러내 밝히오니 부디 받아 주십시오. 저는 잘못을 뉘우친 뒤로는 꼭 지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²¹⁾

<세존> 그렇다. 가미니여, 너는 실로 바보 같고 미치광이 같으며,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며 나쁜 사람인 것 같다. 왜냐하면 너는 여래 무소착 등정각에게 망령되게도 ‘환자’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능히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알아 드러내 밝혔으며, 꼭 지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만일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알아 드러내 밝히며, 꼭 지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면 곧 거룩한 법이 점점 자라나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²²⁾

위 경문에서는 부처님은 환(幻)과 환자(幻者)에 대해 잘못 알고 이해한 외도 가미니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면서 교화하고 있는 장면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환(幻)을 안다는 것과 환자(幻者)는 엄격히 다르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가미니는 즉시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 알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아함경』제57권의 「전모경」제7에 이교도 전모 우타이(優陀夷)가 부처님께 참회하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그 내용을 언급해보면, 전모 우타이가 그 대중들과 함께 큰 소리로 여러 가지 축생들의 이야

21) 『中阿含經』(T1, 445c), “世曰 悔過, 瞿曇自昔善逝 如愚、如癡 如不定、如不善 所以者何 我以妄說沙門瞿曇是幻, 唯願瞿曇受我悔過, 見罪發露, 我悔過已, 護不更作.”

22) 『中阿含經』(T1, 446a), “世尊告曰 如是, 伽彌尼 汝實如 愚、如癡、如不定、如不善 所以者何 謂汝於 如來、無所著、等正覺妄說是幻 然汝能悔過, 見罪發露, 護不更作 如是, 若有悔 過, 見罪發露, 護不更作者, 則長養聖法而 無有失.”

기를 하며, 시끄럽게 외쳐대며 토론하고 있을 때²³⁾, 부처님이 방문을 한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부처님이 와주길 바라면서 만일 부처님이 오시면 침묵하자고 함께 모의한다. 공작원을 방문한 부처님이 이교도의 중주인 전모에게 “우타이(優陀夷)여, 아까는 무슨 일을 이야기하였으며, 무슨 일로 여기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가?”라고 묻자, 전모는 “그 이야기는 우선 거론하지 마소서. 그 이야기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들으셔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²⁴⁾라고 대답하며 부처님을 무시해버린다. 그러자 부처님이 재차 묻게 되고, 우타이는 마치 못해 대답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육사외도들이 가진 사상의 무익함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었다고 대답한다. 그러면서 중주 우타이는 육사외도를 찾아가 질문하였던 것과 똑같이 부처님께도 질문한다.

만일 내가 사문 구담을 찾아가 내 과거의 일을 물으면 사문 구담은 반드시 내 과거의 일을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사문 구담을 찾아가 내 미래의 일을 물으면 사문 구담은 반드시 내 미래의 일을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만일 내가 사문 구담에게 묻고 싶은 것을 다 물어도 사문 구담은 또한 반드시 내가 물은 대로 대답해 주실 것이다.²⁵⁾

그러자 부처님은 “우타이여, 그만두라. 그만두라. 너는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소견·다른 인내·다른 즐거움·다른 욕심·다른 뜻이 있었

23) 『中阿含經』(T1, 783c), “孔雀林異學 箭毛 宗主 彼在大眾喧鬧擾亂 放高大音聲

24) 『中阿含經』(T1, 783c), “世尊問曰 優陀夷 向論何等 以何事故共集 坐此.學箭毛答曰 瞿曇 且置此論, 此論非妙, 沙門瞿曇欲聞此論, 後聞不難.”

25) 『中阿含經』(T1, 784a), “若我當往詣沙門瞿曇所, 問過去事者, 沙門瞿曇必能答我過去事也. 我當往詣沙門瞿曇所, 問未來事者, 沙門瞿曇必能答我未來事也. 復次, 若我隨 所問沙門瞿曇事者, 沙門瞿曇必亦答我 隨所問事.”

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뜻을 다 알지 못한다.”²⁶⁾라고 하면서 우타이의 사건(邪見)에 대해 각성시켜 주신다. 여기서 우타이가 가지고 있는 사건은 다른 소견·다른 인내·다른 즐거움·다른 욕심·다른 뜻이다. 이러한 5가지 사건 때문에 부처님이 아무리 정법(正法)을 우타이에게 설 해주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만두라고 하신 것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5가지 사건이 바로 미혹으로 가는 첫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5가지 사건은 비단 우타이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은 팔정도의 첫 번째 항목으로 정견(正見)을 두었다고 생각된다.

부처님의 그만두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타이는 부처님께 간절한 가르침을 원하자 그런 우타이에게 부처님은 먼저 그동안 모셔왔던 스승에게서 어떤 법을 배웠는지를 묻자, 우타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그가[스승] 말한 빛깔[色]은 다른 어떤 빛깔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깔은 가장 훌륭하며 그 빛깔은 최상(最上)입니다. 그 빛깔은 마치 지극히 묘한 자마(紫磨)색의 금정(金精)을 금 다루는 기술자가 잘 갈고 닦아 흰 비단을 깔고 햇볕에 놓아두면 그 빛이 지극히 아름답고 그 광명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그 빛깔은 다른 빛깔보다 낫다. 그러므로 그 빛깔은 가장 훌륭하고 그 빛깔은 최상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²⁷⁾

우타이의 대답을 듣고 부처님은 우타이가 알고 있는 이러한 내용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해주고 있다.

26) 『中阿含經』(T1, 784a), “世尊告曰 優陀夷 止止 汝長夜 異見、異忍、異樂、異欲、異意故, 不得盡知我所說義.”

27) 『中阿含經』(T1, 784c-785a), “彼說色過於色, 彼色最勝, 彼色最上. 猶如紫磨, 極妙金精, 金師善磨, 瑩治令淨 藉以白練, 安著日中, 其色極妙. 光明照耀 如是 我說彼色過於色, 彼色最勝, 彼色最上.”

이들도 모든 하늘(諸天)의 광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 해와 달의 빛도 미치지 못하는 모든 하늘을 자신은 알고 있지만, 부처님은 그 빛깔은 다른 빛깔보다 낫고, 그 빛깔은 가장 우수하고, 그 빛깔은 최상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²⁸⁾

여기서 만일 부처님이 그 빛깔이 낫고 가장 우수하다고 말해버리는 순간, 그것은 바로 사법(邪法)으로서 사견(邪見)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교설하신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우타이는 “세존이시여, 이 설을 회과(悔過)합니다. 선서시여, 이 설을 회과(悔過)합니다.”²⁹⁾라고 참회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타이여,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말을 회과(悔過)합니다. 선서시여, 저는 그 말을 회과(悔過)합니다’라고 말하는가?”³⁰⁾라고 되묻는다. 이 장면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우타이의 참회가 부처님이 보시기에 진정성이 없이 건성으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에 대해 우타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저는 ‘그 빛깔은 다른 빛깔보다 낫다. 그 빛깔은 가장 우수하며, 그 빛깔은 최상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문 구담께서는 저를 잘 단속하시고, 잘 가르치고, 잘 꾸짖으시어, 저의 허망한 생각들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말을 회과(悔過)합니다. 선서시여, 저는 그 말을 회과(悔過)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³¹⁾

28) 『中阿含經』(T1, 785b), “彼色過於色, 彼色最勝, 彼色最上.”

29) 『中阿含經』(T1, 785c), “世尊 悔過此說 善逝 悔過此說.”

30) 『中阿含經』(T1, 785c), “優陀夷 汝何意故作如是說 世尊 悔過此說, 善逝 悔過此說耶.”

31) 『中阿含經』(T1, 785b), “我作是說 彼色 過於色, 彼色最勝, 彼色最上 沙門瞿曇今善 檢我 善教善訶 令我虛妄無所有也 是故我如是說 世尊 悔過此說 善逝悔過 此說.”

이 「전모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참회용어는 ‘회과(悔過)’라는 말인데, 회과(悔過)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저지른 죄나 허물을 참회한다.’는 뜻이다. 이 「전모경」의 내용은 이교도였던 바라문이 진심으로 회과(悔過)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교화 과정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또 『중아함경』26권의 「우담바라경(優曇婆邏經)」에는 참괴(慙愧)를 고행과 연관시켜 설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고행자가 고행하는데, 이 고행자는 고행으로 말미암아 성냄과 얽매임·말하지 않는 원결·아낌·질투·아침·속임이 있고, 제 부끄러움과 남 부끄러움이 없다. 만일 어떤 고행자가 고행하는데 이 고행자가 고행으로 말미암아 성냄과 얽매임·말하지 않는 원결·아낌·질투·아침·속임이 있고, 제 부끄러움과 남 부끄러움이 없으면, 이것을 고행을 행하는 자의 더러움이라 한다.³²⁾

이 경문의 내용은 우담바라 숲에 있는 이학들의 동산에서 이교도의 우두머리인 무에(無恚)를 부처님이 교화하고 있는 장면의 내용이다. 이교도 무에가 부처님을 거짓말로 꾸며 속이는 것을 아신 부처님의 일침이라는 점에 부처님이 당시 이교도를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경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수행자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해야 하는가에 관한 시사점이다. 즉, 부처님은 올바르게 못한 방법 즉 성냄과 얽매임, 말하지 않는 원결·아낌·질투·아침·속임이 있고, 참괴가 없이 고행한다면, 그것은 고행하는 사람의 더러움만 더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중아함경』 29권 「빈궁경」에서는 “제 부끄러움과 남 부끄러움을 갖추면 거의 간탐(慳貪)이 없게 된

32) 『中阿含經』 (T1, 593b), “因此苦行, 瞋、纏、不語結、慳、嫉、諛諂、欺誑、無慙、無愧。若有一苦行因 瞋纏、不語結、慳、嫉、諛諂、欺誑、無慙、無愧者, 是謂, 行苦行者穢。”

다.33)”고 올바른 참회의 의미에 대해 설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아함경』의 제17권부터 18권의 「장수왕품」에도 참회내용이 교설되고 있다.

3. 잡아함경의 사례

『잡아함경』의 제47권 「이정법경」에는 참회를 두 가지 깨끗한 법이라고 하면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두 가지 깨끗한 법이 있어서 능히 세간을 보호한다. 어떤 것이 그 두 가지 법인가? 이른바 자기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慚]과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것[愧]이다. 가령 이 세간에 이 두 가지 깨끗한 법이 없었더라면 세상은 부모·형제·자매·처자·종친·사장·존비의 차례가 있음을 알지 못해서, 뒤바뀌고 혼란하게 되어 축생(畜生)의 세계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과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것, 이 두 가지 깨끗한 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부모와·형제·자매·처자·종친·사장과 존비의 차례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34)

이 경문에서 부처님이 언급한 것처럼, 참회는 자기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남에게 부끄러움을 가지는 깨끗한 두 가지 법이다. 이 두 가지 깨끗한 법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부모와 형제·자매·처자·종친·사장과 존비의 차례가 있다고 하면서, 참회가 없는 것과 참회가 있는 것에 대한 과보를 다음과 같은 계승으로 강조하고 있다.

33) 『中阿含經』(T1, 614c), “具足成慚愧 庶幾無慳貪.”

34) 『雜阿含經』(T2, 340c), “有二淨法, 能護世間 何等為二 所謂慚愧 假使世間無此二淨法者, 世間亦不知有父母、兄弟、姊妹、妻子、宗親、師長尊卑之序, 顛倒渾亂, 如畜生趣 以有二種淨法, 所謂 慚愧, 是故世間知有父母, 乃至師長尊卑之序.”

세상에 만일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두 가지 법이 없었다면, 청정한 도를 어기고 뛰어넘어서 생·노·병·사를 향해 달려가리라.³⁵⁾

세간에 만일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두 가지 법을 성취하면, 청정한 도를 자꾸 자라게 하고 나고 죽는 문 영원히 닫아버리리.³⁶⁾

이 경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참괴가 없는 수행은 청정한 도를 어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사를 유전하게 되고, 참괴를 성취한 수행은 청정한 도가 증장하여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잡아함경』 제38권의 「적경(賊經)」의 앙굴리라마 사례이다. 이 「적경(賊經)」에는 부처님이 당시 희대(稀代)의 살인마였던 앙굴리마라를 구제한 일화가 설해져 있다. 앙굴리마라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행자가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한과를 이루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먼저는 악업(惡業)을 짓다가도 / 올바르게 착함으로 멀해 없애면 / 세상 은혜와 애정의 흐름에서 / 바른 생각으로 멀리 벗어날 수 있으리.³⁷⁾

나는 이미 악업을 지었거니 / 틀림없이 나쁜 세계를 향하여 거기서 모진 과보(果報)를 받아 / 묵은 빛으로 먹히고 또 먹히리.³⁸⁾

만일 그들이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다가도 / 그들이 이러한 바른 법을

35) 『雜阿含經』 (T2, 340c), “世間若無有 慚愧二法者 違越清淨道 向生老病死”

36) 『雜阿含經』 (T2,341a), “世間若成就 慚愧二法者 增長清淨道 永閉生死門.”

37) 『雜阿含經』 (T2, 281b), “人前造惡業 正善能令滅 於世恩愛流 正念能超出.”

38) 『雜阿含經』 (T2, 281b), “我已作惡業 必向於惡趣 已受於惡報 宿責食已食.”

듣는다면 / 맑고 깨끗한 법안(法眼)을 얻어 / 나에 대하여 인욕행(忍辱行)을 닦아 / 다시는 다투는 일 일으키지 않으리니 / 부처님의 은혜로운 힘에 힘입어서라네.³⁹⁾

나를 원망하여도 인욕 행하고 /또한 늘 참는 이를 찬탄하며
때를 따라 바른 법을 듣고 / 듣고 나서는 그대로 수행하리라.⁴⁰⁾

이 「적경(賊經)」은 『별역잡아함경』 제1권 16번째 소경과 『증일아함경』 제31권 6번째 소경과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며, 이역경전으로는 축법호(竺法護)가 한역한 『불설앙굴마경(佛說鶯掘摩經)』과 법거(法炬)가 한역한 『불설앙굴계경(佛說鶯崛髻經)』이 있다. 이들 경전들은 앙굴리라마는 청정한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으나, 출가 전에 지은 전생의 악업으로 인하여 결국 사람들의 돌팔매질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간에도, 참회의 정법(淨法)으로써 열반에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잡아함경』에는 2개의 「참괴경」이 설해져 있는데, 하나는 『잡아함경』 제22권이고, 또 하나는 제38권이다. 이 2권은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잡아함경』 제22권 578. 「참괴경」은 한 천자가 부처님 앞에 홀연히 나타나 “참괴심으로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은 온갖 악을 벗어남이 좋은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 같다”⁴¹⁾고 말하자, 이에 대해 부처님은 언제나 참괴심을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은 혼하지 않다고 언급하시면서, 참괴의 마음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온갖 악을 능히 멀리 벗어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자 천자는

39) 『雜阿含經』 (T2, 281b), “若彼我怨憎 聞此正法者 得清淨法眼 於我修行忍 不復興鬪訟 蒙佛恩力故.”

40) 『雜阿含經』 (T2, 281b), “我怨行忍辱 亦常讚歎忍 隨時聞正法 聞已隨修行.”

41) 『雜阿含經』 (T2, 154a), “子而說 常習慚愧心 此人時時有 能遠離諸惡 如顧鞭良馬.”

오래 전에 참괴의 마음으로 수행하여 모든 두려움과 세상의 은애까지 영원히 벗어나 반열반을 얻은 바라문을 보았는데 그분이 다름 아닌 부처님이라고 찬탄하고 있다.

반면에 『잡아함경』 제38권 1080. 「참괴경」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모든 감각기관을 잘 단속한다면 오랜 세월동안 유익함이 있을 것이고, 안온함과 쾌락(快樂)을 얻을 것이라는 내용의 교설이다. 이 두 가지 「참괴경」의 하나는 천자가 참괴에 대한 질문과 찬탄이라면, 또 하나의 「참괴경」은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으로써, 수행자는 모든 감각기관을 잘 제어하는 것이 바로 안온함을 얻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설하고 있다. 이들 경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참괴와 수행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증일아함경의 사례

여기서는 외도바라문과 출가자 난타의 일화, 그리고 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교설한 법을 구하는 일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외도 바라문에 대한 일화를 살펴보면, 『증일아함경』의 제6권에는 외도 바라문이 부처님을 비방하다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화되어 스스로 참회하고 출가하여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간 일화⁴²⁾가 설해져 있다.

세존께서는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서 수천만 대중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설법하고 계셨는데, 그때 강측(江側) 바라문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갑자기 세존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러 짐을 내려놓고는 잠자코 한쪽에 머물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오늘 사문 구담은 수천만 대중들에게 앞뒤로 빙 둘러싸여 설법을 하고 있다. 청정하기로 말하면 지금 내가 사문 구담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왜냐하면 사문 구담은 좋은 쌀밥에 갖가지 맛있는

42) 『增壹阿含經』 (T2, 573c-575a).

반찬을 드시지만 나는 과일이나 오이 따위를 먹으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³⁾

라고 생각하는 강측 바라문의 생각을 꿰뚫어 아시고,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강측 바라문과 청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마음이 더러워지는 21가지의 맺음을 설법해주고 있다.

지금 어떤 중생은 21결(結)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 마땅히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 사람은 좋은 곳에 태어나지 못하고 틀림없이 나쁜 세계에 떨어질 것이다. 어떤 것이 그 21가지인가? 성내는 마음의 번뇌[瞋心結], 해치려는 마음의 번뇌[恚害心結], 잠을 자려는 마음의 번뇌[睡眠心結], 조롱하고 희롱하려는 마음의 번뇌[調戲心結], 의심하는 마음의 번뇌[疑是心結], 기피하려는 것이 마음의 번뇌가 되는 것[忌爲心結], 고뇌가 마음의 번뇌가 되는 것[惱爲心結], 시기함이 마음의 번뇌가 되는 것[嫉爲心結], 미워함이 마음의 번뇌가 되는 것[憎爲心結],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마음의 번뇌[無慚心結], 남 부끄러운 줄 모르는 마음의 번뇌[無愧心結], 허깨비가 마음의 번뇌가 되는 것[幻爲心結], 간사함이 마음의 번뇌가 되는 것[姦爲心結], 거짓이 마음의 번뇌가 되는 것[僞爲心結], 다툼이 마음의 번뇌가 되는 것[諍爲心結], 교만함이 마음의 번뇌가 되는 것[驕爲心結], 거만함이 마음의 번뇌가 되는 것[慢爲心結], 질투가 마음의 번뇌가 되는 것[妬爲心結], 증상만이 마음의 번뇌가 되는 것[增上慢爲心結], 탐욕이 마음의 번뇌가 되는 것[貪爲心結] 등이다.⁴⁴⁾

43) 『增壹阿含經』(T2, 573c), “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 世尊與數千萬衆, 前後圍遶而為說法 爾時, 江側婆羅門身負重擔, 便至世尊所 到已捨擔 一面在世尊所, 默然而住 爾時, 彼婆羅門作是思惟 今日沙門瞿曇與數千萬衆, 前後圍遶而為說法 我今清淨, 與沙門瞿曇等無有異 所以然者, 沙門瞿曇食好粳糧, 種種餽饌, 今我食菓蔬以自濟命.”

44) 『增壹阿含經』(T2, 573c), “其有衆生以二十一結染著心者, 當觀彼人必墮惡趣, 不生善處。云何為二十一結 瞋心結、恚害心結、睡眠心結、調戲心結、疑是心結、怒為心結、忌為心結、惱為心結、疾為心結、憎為心結、無慚心結、無愧心結、幻為心結、姦為心結、僞為心結、諍為心結、驕為心結、慢為心結、妬為心結、增上慢為心結、貪為心結.”

이 21가지 맺음(結)의 설법에서 참괴(慚愧)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강측 바라문이 스스로 참회하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의도가 함의되어 있다. 이것은 부처님이 설하고 있는 21가지 과보에서 확인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21결(結)이 있어 마음으로 집착한다면, 마땅히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쁜 세계에 떨어지고 좋은 곳에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비유하면 마치 흰 천으로 만든 새 옷이 오래 되어 먼지와 때가 많이 묻게 되면, 그것은 과량·노랑·빨강·검정 등의 물감으로 물들이려고 하여도 끝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먼지와 때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어떤 사람이 저 21결(結) 때문에 마음에 집착이 생기게 되면 마땅히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쁜 세계에 떨어지고 좋은 곳에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⁴⁵⁾

이와 같이 현성의 제자로서 마음이 해탈을 얻으면 비록 쌀밥과 여러 가지 맛있는 좋은 반찬을 수미산만큼 많이 먹는다고 해도 마침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탐욕이 다하여 애착이 없어졌기 때문이요, 성냄이 다하여 분노가 다 없어졌기 때문이며, 어리석음이 다하여 어리석음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러 '마음을 아주 깨끗이 씻었다'고 하는 것이다.⁴⁶⁾

그러나 이러한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강측 바라문은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부처님을 설득하려고 “사문 구담이시여, 손타라(孫陀羅)강에 가서 목욕하십시오.”⁴⁷⁾라고 말하고 있다. 그

45) 『增壹阿含經』(T2, 573c), “若有人有此二十一結染著心者, 當觀其人必墮惡趣, 不生善處 猶如白新衣, 久久朽故, 多諸塵垢, 意欲染成其色, 青、黃、赤、黑終不得成。何以故 以有塵垢故 若有人以此二十一結染著心者, 當觀其人必墮惡趣, 不生善處。”

46) 『增壹阿含經』(T2, 574b-c), “賢聖弟子心得解脫, 雖復食粳糧、善美種種餽餼, 搏若須彌, 終無有罪 所以然者, 以無欲、盡愛故, 以無瞋、盡恚故, 以無愚癡、盡愚癡故, 是謂比丘中比丘 則內極沐浴已。”

47) 『增壹阿含經』(T2, 574c), “瞿曇沙門 可往至孫陀羅江側沐浴。”

러자 부처님은 “바라문아, 어찌하여 그 강을 손타라 강이라고 부르는가?”⁴⁸⁾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강측 바라문은 “손타라 강물은 복(福)이 되는 깊은 못이요, 세상의 광명입니다. 만일 어느 누구라도 그 강물에 목욕을 하면 모든 악이 다 없어집니다.”⁴⁹⁾라고 한다. 그러자 부처님은 계송으로 다음과 같이 반문(反問)하고 있다.

나는 무수한 겁을 지나는 동안 / 그 강물에 가서 목욕하였고
 또 수없이 많은 작은 연못을 / 골고루 다니면서 목욕하였다.
 어리석은 이들이 목욕을 즐기지만 / 남몰래 더러운 짓 저지른다.
 목은 죄 몸 안에 가득 찼는데 / 어떻게 저 강물이 그를 구하리.⁵⁰⁾

이 경문에서 부처님은 오랜 겁 동안 무수한 강물에서 목욕을 한다고 해서 남몰래 지은 십악업(十惡業)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죄업은 삼업(三業)으로 인한 것인데, 어떻게 강물에 목욕한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말(언어)로 하는 일체의 행위는 뜻(생각,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님은 몸과 언어(말)는 의업(意業)인 생각(마음)을 통해서 짓게 되는 표업(表業)이기 때문에 의업(意業)이 가장 무겁다고 설하셨다. 다음의 계송은 악업을 끊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관한 교설이다.

깨끗한 이는 언제나 즐겁고 / 계율이 맑으면 그 또한 시원하다네.
 맑은 사람은 맑은 행을 행하나니 / 그는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⁵¹⁾

48) 『增壹阿含經』(T2, 574c), “云何, 婆羅門! 名之為孫陀羅江水.”

49) 『增壹阿含經』(T2, 574c), “孫陀羅江水是福之深淵, 世之光明, 其有 人物在彼河水浴者, 一切諸惡皆悉除盡.”

50) 『增壹阿含經』(T2, 574c), “此身無數劫 經歷彼河浴 及諸小陂池 靡 不悉周遍 愚者常樂彼 闍行不清淨 宿罪內充軀 彼河焉能救.”

주지 않는 것 가지지 않고 / 자애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으며
진실을 지켜 거짓말이 없으면 / 마음이 평등하여 더하고 덜함이 없으
리.⁵²⁾

네가 지금 이 계율에 목욕하면 / 반드시 편하고 아늑한 곳 얻으리라.
구태여 강물로 갈 것 없나니 / 장님을 어둠 속에 던진 것 같으리.⁵³⁾

위 경문의 내용은 지계를 잘 지키고 맑은 행으로 수행한다면 서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전언이 담겨있다. 여기서 붓다는 그 방법론으로 5계(戒) 수행을 제시하고 있다. 부처님의 계송을 들은 강측 바라문은 그제야 무지에서 벗어나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다음과 같이 간청하고 있다.

이제 그만 두십시오. 구답이시여, 마치 꿈추의 등을 펴게 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이며, 해매는 이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주며, 장님에게 눈을 주듯이, 사문 구답께서는 무수한 방편으로 그묘한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라옵건대 저에게도 도 닦기를 허락해주소서."

강측 바라문(孫陀羅諦利: 江側)은 곧 비구가 되어 구족계를 받고 ‘나고 죽음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을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사실 그대로 깨달은 아라한이 되었다⁵⁴⁾고 경전에서 전하고 있다.

51) 『增壹阿含經』 (T2, 574c), “淨者常快樂 禁戒清亦快 清者作清行 彼願必果成.”

52) 『增壹阿含經』 (T2, 574c), “設護不與取 行慈不殺生 守誠不妄語 心等無增減.”

53) 『增壹阿含經』 (T2, 574c), “汝今於此浴 必獲安隱處 彼河何所至 猶盲投乎冥.”

54) 『增壹阿含經』 (T2, 574c), “江側婆羅門即得作道, 受具足戒 生死已

『증일아함경』 제9권의 「참괴품」은 10개의 소경으로 구성⁵⁵⁾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참괴’에 대한 정의와 참괴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10개의 소경 중에 난타비구와 관련된 6경과 7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사건의 발단을 찾을 수 있는 경문은 6소경과 7소경이라 할 수 있는데, 6소경이 7소경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해져 있다.

수행자 난타(難陀)가 눈이 부시도록 빛깔이 찬란하고 매우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金)으로 장식한 신을 신고, 또 두 눈썹을 예쁘게 그리고 고는 발우를 들고 사위성(舍衛城)으로 걸식(乞食)을 하려고 하는 것을 멀리서 많은 비구들이 보고 그 모습을 부처님께 전하게 된다.⁵⁶⁾

많은 비구들이 부처님께 난타비구의 여법하지 못한 의제착용을 알린 이유는 난타가 범행(梵行) 닻기를 견디지 못해 법의(法衣)를 벗고 속인[白衣]의 행(行)을 익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부처님이 이러한 난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 주길 원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즉시 난타를 불러놓고, “난타야, 범행 닻기를 좋아하지 않아 법의를 벗고 속인의 행을 따르려 하느냐?”⁵⁷⁾라고 묻자, 난타는 그렇다고 말한다. 부처님이 그 까닭을 묻자, 음욕이 불꽃처럼 일어나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⁵⁸⁾이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부처님은 난타의 치성한 음욕을 없애주기 위해 방편으로 향산으로 난타를 데리고 가서 동굴 속에 살고 있는 한 마리 원숭이와 속가에 두고 온 아내와 비교하게 한다.⁵⁹⁾

盡，梵行已立，所作已辦，更不復受有，如實知之 即成阿羅漢。”

55) 『增壹阿含經』 (T2, 587b-593a).

56) 『增壹阿含經』 (T2, 591a), “難陀著極妙之衣，色曜人目，著金廁履屣，復妝飾兩目，手執鉢器，欲入舍衛城 爾時，衆多比丘遙見難陀著極妙之衣，入舍衛城乞 爾時，衆多比丘便往至世尊所，白世尊曰。”

57) 『增壹阿含經』 (T2, 591b), “難陀 不樂修梵行，欲脫法衣，修白衣行乎。”

58) 『增壹阿含經』 (T2, 591b), “欲心熾然，不能自禁.”

33천의 선법강당(善法講堂)에 모여 있는 5백 옥녀(玉女)와 속가 아내를 비교케 하고⁶⁰), 오른손으로 난타의 손을 잡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서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을 보게 한다. 그러던 중에 난타는 지옥에서 비어 있는 커다란 가마솥 하나를 발견하고 “이 아버지옥만이 비어 있사운데, 여기는 죄인이 아무도 없습니까?”⁶¹)라고 부처님께 묻자, 부처님은 옥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신다. 난타는 “옥졸(獄卒)이여, 여기는 무슨 지옥인데 텅 비어있고 아무도 없습니까?”⁶²)라고 묻자, 옥졸은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다.

비구여,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석가문(釋迦文) 부처님의 제자 난타는 여래의 처소에서 범행(梵行)을 깨끗이 닦고 있는데, 그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좋은 세계인 천상(天上)에 태어나, 천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스스로 쾌락을 누릴 것이다. 그러다가 그는 거기에서 목숨을 마치고 이 아버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그때 이 빈 가마는 곧 그의 집이 될 것이다.⁶³)

이러한 옥졸의 말은 듣고 난타는 더욱 두렵고 무서워서 온 몸의 털이 곤두섰고, 곧 ‘이 빈 가마솥이 바로 내 집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부처님께 돌아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바라옵건대 제가 지금 참회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범행은 닦지 않고 여래를 괴롭혔습니다.”⁶⁴)라고 참회하고, 다시 다음과 같은

59) 『增壹阿含經』 (T2, 591c), “此族姓子欲意極多, 我今宜可以火滅火 將難陀至香山上 何者為妙 為孫陀利釋種妙耶 為此瞿獼猴妙乎.”

60) 『增壹阿含經』 (T2, 592a), “難陀 孫陀利釋女妙耶 為是五百天女妙乎.”

61) 『增壹阿含經』 (T2, 592a), “此是阿毘地獄, 而獨自空, 亦無罪人.”

62) 『增壹阿含經』 (T2, 592a), “獄卒 此是何獄 此是何獄空無有人.”

63) 『增壹阿含經』 (T2, 592a-b), “比丘當知, 釋迦文佛弟子名曰難陀, 彼於如來所, 淨修梵行, 身壞命終, 生善處天上, 於彼壽千歲, 快自娛樂復於彼終, 生此阿毘地獄中, 此空鑊者即是其室.”

계송으로 굳은 수행을 다짐하고 있다.

사람의 삶이란 귀할 것 하나 없고 / 하늘의 목숨도 다하면 죽는다네.
지옥은 아프고 쓰라리고 괴로운 곳 / 오직 열반에만 즐거움이 있네.⁶⁵⁾

그러자 부처님께서서는 난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네 말과 같다. 열반만이 가장 즐거운 것이다. 난타야, 너의 참회를 받아주소라. 너는 어리석었다. 너는 참으로 어리석었다. 그러나 이제 내 앞에서 스스로 그 허물을 알았으니, 나는 이제 네 참회를 들어준다. 뒤에는 다시 범하지 말라."⁶⁶⁾

난타의 참회를 받아주시면서 청정한 범행을 닦을 것을 당부하시고, 부처님께서 팔을 굽혔다 펴는 짧은 시간 동안에 손으로 난타를 붙들고 지옥에서 사라져 사위성에 있는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으로 돌아오신다.⁶⁷⁾ 그리고 난타에게 수행하는 2가지 바른 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시고 있다.

난타야, 너는 지금부터 반드시 두 가지 법(法)을 닦아야 하느니라. 어떤 것이 그 두 가지 법인가? 이른바 지(止)와 관(觀)이다. 또 두 가지 법을 닦

64) 『增壹阿含經』 (T2, 592b), “時難陀聞此語已, 便懷怖慄, 衣毛皆豎, 即生此念 此之空釜, 正為我耳 來至世尊所, 頭面禮足, 白世尊曰 願受懺悔, 我自罪緣, 不修梵行, 觸燒如來.”
65) 『增壹阿含經』 (T2, 592b), “人生不足貴 天壽盡亦喪 地獄痛酸苦 唯有涅槃樂.”
66) 『增壹阿含經』 (T2, 592b), “善哉善哉 如汝所言, 涅槃者最是快樂 難陀 聽汝懺悔, 汝愚、汝癡, 自知有咎於如來所 今受汝悔過, 後更莫犯.”
67) 『增壹阿含經』 (T2, 592b), “世尊屈伸臂頃, 手執難陀, 從地獄不現, 便至舍衛城祇樹給孤獨園.”

아야 하느니라. 어떤 것이 그 두 가지 법인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즐거워 할 만한 것이 아니요, 열반만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하느니라. 어떤 것이 그 두 가지 법인가? 이른바 지혜(智慧)와 변재(辯才)이다.⁶⁸⁾

이것을 계기로 난타는 더 이상 음욕의 불에 빠져 있지 않고, 난타는 한가하고 조용한 곳에서 지내면서 언제나 여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잠시도 잊지 않고 수행한 결과, ‘나고 죽음을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썼으며, 할 일을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알게 되었다.⁶⁹⁾

그때 난타는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나고 죽음이 이미 다하였고, 범행이 이미 성취되었구나. 아라한이 된 사람은 바로 난타 비구요, 음욕·성냄·어리석음이 없는 이도 바로 난타 비구이니라.”⁷⁰⁾ 라는 인가를 받게 된다.

이 소경에서 육도윤회는 깨닫지 못하는 한,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한 난타비구의 참회를 통한 수행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이 자못 크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증일아함경』의 제9권의 3소경에 보이는 “어떤 것이 세존의 제자로서 이양(利養)만을 탐하고 집착하여 법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세존의 제자로서 법 수행하기를

68) 『增壹阿含經』(T2, 592b), “汝今, 難陀當修二法。云何為二法 所謂止與觀也 復當更修二法 云何為二法 生死不可樂, 知涅槃為樂, 是謂二法復當更修二法。云何為二法 所謂智與辯也。”

69) 『增壹阿含經』(T2, 592b), “尊者在閑靜處, 恒思惟如來教, 不去須與所以族姓子, 以信牢固出家學道, 修無上梵行, 生死已盡, 梵行已立, 所作已辦, 更不復受有, 如實知之。”

70) 『增壹阿含經』(T2, 592c), “汝今生死已盡, 梵行已立, 吾即捨之 得阿羅漢者, 今難陀比丘是 無婬、怒、癡, 亦是難陀比丘。”

탐하고 이양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까?”⁷¹⁾라는 질문은 수행방법에 대한 내용이라서 주목된다 하겠다. 여기에 대해 사리불은 다음과 같이 교설하고 있다.

여러분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탐욕(貪欲)은 병이 되고, 아주 큰 재앙이며, 성내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탐욕·음욕·성냄을 없애면, 곧 중도를 얻어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 모든 업매임을 풀고 열반(涅槃)에 이르게 될 것이다. 간탐과 질투가 병이 되는 것도 또한 매우 중하고, 번뇌는 사람을 불사르고 묶으며, 교만 역시 심각하다. 거짓되어 진실하지 못한 것과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남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참괴]과 바른 마음을 해치는 음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이다. 만(慢)과 증상만(增上慢)을 버리지 못하는데, 만일 이 2가지 만과 증상만을 버린다면 곧 중도(中道)를 얻어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 온갖 업매임을 풀고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⁷²⁾

여기서 사리불은 삼독(三毒)은 아주 큰 재앙이라고 하면서 삼독을 없애면 중도(中道)의 눈이 생겨 열반에 이르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간탐과 질투, 번뇌와 교만, 거짓, 참괴, 음욕, 증상만을 버리면 중도(中道)의 지혜가 생겨 업매임에서 벗어나 해탈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은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현성(賢聖)의 8품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① 바른 소견[正見]·② 바른 다스림[正治]·③ 바른 말[正語]·④

71) 『增壹阿含經』 (T2, 588b), “云何世尊弟子貪著利養, 不修行法 云何世尊弟子貪修行法, 不貪利養.”

72) 『增壹阿含經』 (T2, 588c), “諸賢當知, 貪之為病, 甚大災患, 瞋恚亦然貪婬、瞋恚滅者, 便得處中之道, 眼生、智生, 諸縛休息, 得至涅槃 慳疾為病, 亦復極重, 煩惱燒煮, 憍慢亦深. 幻偽不真, 無慚、無愧, 不能捨離, 婬欲敗正, 慢、增上慢亦復不捨 此二慢滅, 便得處中之道, 眼生、智生, 諸縛休息, 得至涅槃.”

바른 행위[正行]·⑤ 바른 생활[正命]·⑥ 바른 방편[正方便]·⑦ 바른 기억[正念]·⑧ 바른 삼매[正三昧]이다. 이것이 ‘성현이 중도에 처하여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 온갖 얽매임을 풀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⁷³⁾

이 경문은 중생이 고통의 원인인 탐(貪)·진(瞋)·치(痴)를 없애고 해탈(解脫)하여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 수행해야 하는 8가지 올바른 길인 팔정도를 실천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위 경문에서 언급한 ② 바른 다스림[正治]은 정사(正思: 正思惟):올바로 생각하는 것을 뜻하며, ④ 바른 행위[正行]는 올바로 행동하는 정업(正業)이다. 그리고 ⑥ 바른 방편[正方便]은 올바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인 정근(正勤: 正精進)이며, ⑧ 바른 삼매[正三昧]는 올바르게 집중하는 정정(正定)이다. 따라서 이 교설의 핵심은 삼독과 사성제의 팔정도로써 수행한다면 모두가 열반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에 있다. 이외에도 『증일아함경』16권의 「고당품」에도 참회관련 내용이 교설되어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불교의 참회수행은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단에서 포살과 자자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자자는 지방승가대학인 강원에서 시행되고 있고, 포살은 하안거와 동안거 결제 시에 시행되고

73) 『增壹阿含經』(T2, 589a), “諸賢當知, 所謂賢聖八品道是 所謂正見、正治、正語、正行、正命、正方便、正念、正三昧。是謂, 諸賢 處中之道, 眼生、智生、諸縛休息, 得至涅槃。”

있는 중요한 불교의 참회수행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포살과 자자는 불교 교단의 구성원인 승가의 청정성과 성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생활 함에 항상 반성하고, 죄를 지었으면 참회하여 승단의 청정성을 유지하게 하고자 한, 승가내의 윤리규범이자 하나의 실천행이기 때문이다.

한역된 『아함경』에 설해진 참회수행 일화에서 공통적으로 설해진 진정한 참회의 의의는 자신의 죄의 허물(罪過)을 바로 알아 진심으로 드러내고, 그 참회를 부처님이 받아줌으로써 죄과(罪過)가 줄어들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참회를 받아줄 만한 현성의 법[부처님] 가운데서 능히 허물을 뉘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참회를 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3가지 요소는 다른 아닌 참회하는 사람, 참회를 받아주는 대상, 그리고 참회하는 행위이다. 온전하게 참회를 하려면 이 3가지 요건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참회하는 사람은 외도바라문로부터 우바새, 우바이, 장자, 이교도, 범지, 출가수행자등이고, 참회를 받아주는 대상은 부처님이며, 참회하는 행위는 십악업(+惡業)에 대한 것이다.

참회를 하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은 적절한 대기설법의 논리적인 비유로써 다양한 사람들의 허물과 무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들이 참회를 통해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고, 올바른 윤리도덕으로써 수행해야 한다는 것과 그 수행방법으로 특히 사성제의 팔정도 수행 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역된 『아함경』의 참회 사례를 통해 연기법과 사성제의 실천수행은 중생이 안온한 해탈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지침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전

대정신수대장경: T로 약칭.

佛陀耶舍共竺佛念譯, 『佛說長阿含經』第十七卷「沙門果經」(T1).

竺曇無蘭譯, 『寂志果經』第1卷(T1).

瞿曇僧伽提婆譯, 『中阿含經』第四卷(T1).

瞿曇僧伽提婆譯, 『中阿含經』제57권, 「箭毛經」(T1).

瞿曇僧伽提婆譯, 『中阿含經』第26卷「優曇婆邏經」(T1).

瞿曇僧伽提婆譯, 『中阿含經』第29卷「貧窮經」(T1).

求那跋陀羅譯, 『雜阿含經』第四十七卷「二淨法經」(T2).

求那跋陀羅譯, 『雜阿含經』第三十八卷「賊經」(T2).

求那跋陀羅譯, 『雜阿含經』第22卷「慚愧經」(T2).

瞿曇僧伽提婆譯, 『增壹阿含經第六』卷「利養品」(T2).

瞿曇僧伽提婆譯, 『增壹阿含經』卷第九「慚愧品」(T2)

釋寶雲譯, 『佛本行經』第7卷「大減品」(T4).

玄奘譯, 『大寶積經』第52卷, 「菩薩藏會」(T11).

曇無讖譯, 『大般涅槃經』卷第十九(T12).

義淨譯,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第15卷「污家學處」(T23).

彌勒菩薩說, 玄奘譯, 『瑜伽師地論』第41卷, 「破僧違諫學處」(T30).

曇無讖譯, 『菩薩地持經』第5卷(T30).

2. 단행본 및 기타

불교에서 본 참회 = Repentance From a Buddhist Point of View

- 목정배,(청담기술연구소, Vol.2003 No.-,[2003])
김현준(2012), 『참회와 사랑의 기도법』, 서울: 효림.
목정배(2003), 「불교에서 본 참회」, 청담기술연구소.
성철 역(1990), 『돈황본 육조단경』, 합천: 장경각.
이광준(2006), 『불교의 참회사상』, 서울: 우리출판사.
이태원(2000), 『초기불교 교단생활』, 서울: 운주사.
법경(2019), 「불교와 진각종의 참회사상 연구」, 『회당학보』제14집, 회당학회.
이문복(2000), 「불교의 참회사상 연구」, 서울: 동국대석사학위논문.

■ Abstract

Discipline of Deśanā (Kṣāma) in Buddhism

- Focusing on the Initial Scriptures of Chinese-translated
'Agama (Ahamgyeong阿含經)' -

Kang, Ki-Sun(Ven. Do-Up)

This thesis is an article that takes a look at the 「Discipline of Deśanā (Kṣāma) in Buddhism- Focusing on the Initial Scriptures of Chinese-translated 'Agama (阿含經Ahamgyeong)' -」. We, the humans, are the presence of living with the good karma or deeds and evil karma or deeds with the body, word and thought on daily basis. Deśanā (Kṣāma) in Buddhism starts from the trī karmāi of such body, word and thought. Following is the formulation of result analyzed with 「Discipline of Deśanā (Kṣāma) in Buddhism- Focusing on the Initial Scriptures of Chinese-translated 'Agama (阿含經Ahamgyeong)' -」. First, the implication of deśanā (Kṣāma) includes the hṛi-apatrāpya as the act of reflecting on one's wrong deed and display its wrong deed. Second, the discipline of deśanā (Kṣāma) is the method of sattva edification from the time of Śākyamuni - Bhagavat that had been an extremely important ethical virtue. This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such discipline of deśanā (Kṣāma) is connected to the religious precepts to be applied as a virtue of basic ethics most fundamental for all tirthaka:tirthika brāhmaas to keep together with the Sabudaejung (4 classes of Buddha followers) of religious order. Third, in the story of Agama (Ahamgyeong阿含經) for 4 types of Korean-translated,

it is shown to have 3 elements of deśanā (kṣāma), namely, people of deśanā (kṣāma), subject of deśanā (kṣāma) and act of deśanā (kṣāma). And the one that is equipped with the 3 requirements of deśanā/kṣāma would be the events of the initial Buddhist order of ‘upavasatha; poadha’ and ‘pravāraa’ and the ‘upavasatha; poadha’ and ‘pravāraa’ is still handed down in the Korean Buddhism today. And, fourth, a common fact learned through the cases of this study in ‘Dīrghāgama-sūtra’, ‘Madhyamāgama-sūtra’, ‘Sayuktāgama-sūtra, and Ekottarāgama-sūtra is that the core doctrine of Buddha regarding the deśanā (kṣāma) is constantly concluded in the pratitaya-samutpada and catvāri-āryasatyāni. Therefore, the biggest characteristics of the deśanā (kṣāma) discipline of Buddhism today is to remove the foolishness by having the Buddha to enthusiastically intervene to accept their deśanā (kṣāma) by brahmacārin, king, criminals, upāsaka, upāsikā and discipline persons in Buddhist priesthoods from the tirthaka: tirthika brāhmaa, and they are edified with the metaphor of the temperamental discourse and present the discipline to march forward the stage of peaceful vimoka by deviating from the restriction of evil karma as well as confirming them through the guidance.

Keywords ● Buddhism, deśanā (kṣāma) and hṛi-apatrāpya, discipline, 4 Agama (Ahamgyeong阿含經), catvāri-āryasatyāni

▮ 논문투고일 : 2020. 5. 15 ▮ 심사완료일 : 2020. 5. 31 ▮ 게재확정일 : 2020. 6. 2